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7

I. 서론

본문은 앞 단락에 이어 하나님의 ()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와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에 관한 것으로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❶19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의인(지혜로운 자)과 악인(미련한 자)의 차이점을 대조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으로 살아가고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❷20장에서는 절제, 정결, 평화, 게으르지 않는 것, 언어생활 등 ()을 지속하기 위한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❸21장에서는 다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의와 공평, 인자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19~21장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감찰 아래 파멸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II. 본문: 솔로몬의 지혜 모음집 후반부(잠언 16:1~22:16)

19. 지혜의 근본과 그 결과(잠 19:1-29)

본장도 앞장과 같이 매우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주 반복되는 주제는 ()이다. 또한 거짓 증언도 자주 언급된다.

1) 관용적인 태도의 중요성(19:1-17)

본 단락은 참된 지혜가 공동체 속에서 너그러운 자세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고집과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고 ()을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수평적인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급히 분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더욱 타인에게 ()을 베푸는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1) 미련한 자의 필연적 실패(19:1-3)

잠언 중 본장에서 처음으로 ‘가난과 부’ 그리고 ‘미련한 자’가 한 말씀 안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게으름에서 비롯된 가난이 아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악한 일을 멀리하고,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반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부유한 악인을 말한다.

①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음

②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함,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감

③“**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급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3절)

****‘지식 없는 소원’, ‘발이 급한 사람’, 즉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주변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 ‘자기 길을 급게 하고’라는 말은 지혜롭지 않아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는 상황을 말한다.**

(2) 재물과 친구(19:4-7)

본 단락은 친구와 재물에 관한 주제를 말하며 특히 법정이라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절과 7절은 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거짓 증인에 대한 경고가 5절에 나오는데, 법정에서 진실한 증언을 해 줄 친구가 없는 가난한 자의 절박한 곤경을 암시한다.

①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함,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짐

②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함,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함

③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됨

④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음, 친구들도 그를 멀리함, 따라가며 말을 걸어도 친구들이 사라짐

****우리가 사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며 부자들은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지만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 가난해져도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 참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를 떠나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이런 자에게 더 많은 친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3) 지혜의 필요성(19:8-12)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자는 ()을 살아가게 된다. 명철을 지키는 자도 생명을 보존하고 ()을 누리게 된다. 이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혜를 말하는데, 거짓증언, 미련한 자의 사치, 자격 없는 자의 통치는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①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함,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음

②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함,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임

③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함,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④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11절)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참고 다스려야 한다. 더 나아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 지나가는 미덕이 필요하다.

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12절)

**권력에 대한 경고이다. 왕의 노함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반면 왕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처럼 백성을 살리고 생동하게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화를 자제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

(4) 행복한 가정(19:13-15)

앞 단락이 주로 공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라면, 본 단락은 가정을 배경으로 한다. 13절은 역기능 가정을 언급하며, 14절은 순기능 가정을 제시한다.

- ① 미련한 아들 → 그의 아버지의 재앙 / 다투는 아내 → 떨어지는 물방울
- ② 집과 재물은 → 조상에게서 상속 / 슬기로운 아내 → 여호와께로 말미암음
- ③ 게으름 →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함,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임

**자식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미련한 자식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준다. 다투는 아내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아내이다. 오늘날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에게 잔소리를 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파괴적이고 위험한 일이며 가족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라는 말씀은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생기 없는 가정, 가난한 가정을 만들 뿐이다.

(5) 선행과 자비(19:16-17)

본 단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자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곧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 ① 계명을 지키는 자 → 자기 ()을 지킴 /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 → 죽을 것임
- ②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실 것임

2)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19:18-29)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귀중함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에 빠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책망함으로써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1) 징계와 훈계의 유익(19:18-20)

①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두지 말지니라”(18절)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를 징계해야 하지만, 그 이유는 자녀가 지혜롭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며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는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 벌을 받을 것임,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럴 일이 생길 것임

③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될 것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다. 화를 내다가 당하던 사람들의 응징을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의도로 화를 말리려 해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한 다시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즉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된다.

(2) 성실과 경건(19:21-23)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살지만,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를 통해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을 베풀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양심을 팔고 억울한 사람을 궁지로 내모는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이다.

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21절)

②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음, 가난한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음

③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악의 유혹을 무사히 넘기고 현세에서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이다.

(3) 게으르고 오만한 자들(19:24-29)

① 게으른 자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귀찮아함

②거만한 자를 때리라 →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본절은 ()의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거만한 자’는 권면하는 자를 비웃는 자이다. 이런 자를 때리라는 것은 말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들이 매 맞을 때 본인 자신도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명철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말로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 부끄러움과 ()을 부르는 자식임

****자식은 부모의 사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는 수치와 모멸감을 불러오게 된다.**

④“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27절)

⑤망령된 증인 → 정의를 업신여김 / 악인의 입 → 죄악을 삼킴

⑥심판 → 거만한 자를 위한 것임 / 채찍 →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한 것임

****솔로몬은 자녀에게 ()을 키우라고 한다. 교훈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어떤 교훈이 참된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망령된 증인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람이다. 악인의 입은 거짓말을 하는 입이다. 이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과 징계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들의 거짓된 증언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20.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잠 20:1-30)

본장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함께 섞여 있는데 중심 되는 내용은 신중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수하는 일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고 다툼을 피하며 선행과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지혜와 개인의 경건 생활(20:1-19)

본 단락은 개인의 경건 생활과 관련하여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솔로몬은 각종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유혹의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단락의 핵심 사상은 다음과 같다. ❶개인적인 경건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❷()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❸()는 경건의 삶을 동반한다.

(1) 멀리해야 할 것(20:1-4)

본 단락은 다툼을 피하는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다. ❶술을 멀리해야 한다. 술은 사람

을 거만하게(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떠들게 한다. 술에 취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말만 많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 ❷**왕의 진노를 사는 일을 멀리해야 한다.** 상관에게 말을 할 때에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말을 하려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❸**다툼을 멀리해야 한다.** 분쟁에 끼여들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미련한 자는 분란에 끼여들어 문제를 일으킨다. ❹**게으름을 멀리해야 한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는 귀찮아하지만 바라는 것은 많다. 이런 삶은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늘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❶포도주 → 거만하게 하는 것 / 독주 → 떠들게 하는 것,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음

❷왕의 진노 → 사자의 부르짖음 같음,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임

❸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임 /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킴

❹게으른 자 → 가을에 밭을 갈지 않음,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함

(2) 분별력과 판단력(20:5-9)

❶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 깊은 물 같음/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냄

**사람의 모략이 알 수 없는 깊은 물처럼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으로 이기적인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❷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함,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신의 충성됨과 인자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반석같이 굳은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❸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임,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

****“온전하게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 헌신적인 삶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그의 자손이다.

❹심판 자리에 앉은 왕 → 그의 눈(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으로 모든 악을 흠여지게 함

❺**“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9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도,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다.

(3) 행실로 드러나는 지혜(20:10-15)

본 단락에서는 먼저 신뢰할 만한 정직한 거래를 하라고 한다. 저울과 되로 속이는 것

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파괴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실로 사람됨을 알 수 있듯이 정직함과 () 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혜는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①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 한결같지 않은 되 → 여호와께서 미워하심

②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실로 사람됨(품행과 정직성)을 드러냄

③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임

④“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13절)

⑤물건을 살 때 정직하게 흥정해야 함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좋지 못하다고 값을 깎고, 사고 나서는 좋은 물건을 샀다고 자랑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⑥세상의 금과 진주보다 ()이 더욱 귀한 보배임

(4) 성공적인 삶을 위해 피해야 할 것(20:16-19)

①보증 선 자의 담보를 확실히 잡아야 함 : 선불리 ()서는 일에 대한 경계

②속이고 취한 음식물 → 입에 가득한 모래가 됨 : 남을 속여 얻는 것은 탈이 나게 됨

③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됨 : 많은 조언을 구해야 성공할 수 있음
지략을 베풀고 전쟁해야함 : 전쟁에 앞서 많은 계획과 통찰이 승리를 불러옴

④“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19절)

***‘한담’은 비방이나 험담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쉽게 누설한다. 그러므로 입이 가벼운 자를 멀리하고 사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2) 참된 지혜에서 비롯된 가치관

본 단락은 참된 지혜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가르치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①참된 지혜는 올바른 인생관을 소유하도록 만든다. ()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참된 지혜를 얻고 바른 인생관을 소유하게 된다. ②하나님은 지혜에 근거해 인생을 평가하신다. 그러므로 지혜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20:20-25)

①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을

당할 것임

****부모의 가르침을 하찮게 여기는 거만한 자는 등불(생명)이 꺼지는 것같이 죽음이나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자에게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이 있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

②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 복이 되지 아니함

****유산 상속에 관한 것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같이 일찍 상속받은 것이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함 → 그가 구원하실 것임

④한결같지 않은 추와 속이는 저울 → 여호와께서 미워하심, 좋지 못한 것임

⑤“**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4절)

****복수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의 길을 아시는 여호와께 ()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⑥충동적인 서원은 인생의 덧이 될 수 있음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후회함이 없다.**

(2) 하나님에 근거한 지혜로운 왕(20:26-30)

①지혜로운 왕 → 악인들을 키질 함,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림

****왕의 사명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굳건해 질 수 있다.**

②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임 →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영혼을 통해 그의 깊은 내면을 살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③왕 →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 / 그의 왕위 → 인자함으로 인해 견고함

④젊은 자의 영화 → 그의 힘 / 늙은 자의 아름다움 → ()

****하나님은 나이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자신의 단점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⑤“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때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30절)
**‘상하게 때리는 것’, 즉 깊은 상처가 악한 행실을 없애는 유익한 도구가 될 때가 있다.

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❶참된 지혜는 인간의 모든 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❷참된 경건 생활은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근거한다. ❸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

21.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잠 21:1-31)

여호와를 신뢰해야한다는 내용이 본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도입부인 1-2절은 결론인 30-31절과 수미쌍관을 이루어, 왕을 통해 실행되는 여호와와의 주권을 강조한다. 3-39절은 본론 부분으로 의인에게 상을 베풀고 악인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에 대한 내용이다. 본장의 내용에서 악인의 특징과 의인이 추구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인의 특징	의인이 추구하는 것들
스스로 정직하다고 여김(2절)	가난한 자의 도움에 귀기울임(13절)
눈이 높고 마음이 ()(4절)	공의를 행함(15절)
마음이 조급함(5절)	명철한 판단(16절)
남을 속임(6절)	쾌락을 멀리함(17절)
공의를 행하기 싫어함(7절)	앞날을 준비함(20절)
다투기를 좋아함(9절)	의와 인자를 추구함(21절)
타인의 재앙을 원함(10절)	()(23절)
거만함(11절)	계속적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줌(26절)

1) 악인들의 행태와 특징(21:1-12)

본 단락은 앞장에 이어서 행악자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판단의 공의로움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악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감찰에 의해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징벌을 당하게 된다.

(1) 하나님의 주권(1-2)

①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음, 그가 임의로 인도하심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세상의 권력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붓물’이란 농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오는 도랑이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랑과 같다. 하나님이 도랑을 파서 왕이 생각이 그 도랑에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②“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2절)

(2) 악인의 몰락(3-7)

①공의와 ()를 행하는 것 →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심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평생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②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 다 죄임

****‘눈이 높은 것’은 거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은 욕심이 많아 ()하고 무절제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변영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다.**

③부지런한 자의 경영 → ()함에 이를 것임 /

조급한 자 → ()에 이를 것임

****부지런함(신속함)과 조급함(서두름)은 다르다.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을 얻지만 조급한 자는 생각과 계획 없이 서두르기 때문에 일을 망치고 궁핍에 이르게 된다.**

④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 죽음을 구하는 것, 불려다니는 안개임

⑤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함, 그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싫어하기 때문

****남을 속여 재물을 얻는 것, 악인의 폭력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구하는 것이며, 자신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삶(8-12)

①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 → 심히 구부러짐 / 깨끗한 자의 길 → ()

②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음

③악인의 마음 → 남의 재앙을 원함,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함

****악인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한다.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 옆에 있으면 아무 은혜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악인들과 가까이해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④“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11절)

2)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사실(21:13-31)

앞 단락(1-12절)에서 주로 악인의 행태와 그로 인한 심판의 문제를 거론했다면, 본 단락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인간사 전반으로 확대하며 지혜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할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또한 뒤이어 나오는 22:1-16과 내용상으로 연결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참된 선택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하나님의 심판(13-18)

- 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심, 악인을 ()에 던지심
- ②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음
- ③ 은밀한 선물 → 노를 쉬게 함, 품 안의 뇌물 →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함

***이 말씀은 뇌물을 주고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 이익을 위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을 바쳤던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이 당장은 좋은 해결방법인 것 같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 ④ 정의를 행하는 것 → 의인에게는 () / 죄인에게는 패망
- 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 사망의 회중에 거할 것임
- ⑥ 연락을 좋아하는 자 → 가난하게 됨,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 부하게 되지 못함

***‘연락’은 즐거움과 쾌락을 의미한다.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면 ()하게 된다. 또한 ‘술과 기름’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즐기고 누리는 일에 집착하다보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⑦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18절)

***‘속전’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이다. 현재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날, 악인들은 그들의 삶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정직한 자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것이다.

(5) 악인의 파괴력과 의인의 능력(19-23)

본 단락은 의인의 영원한 존속에 대한 내용으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는 20절을 제외하고는 의인의 형통과 승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음

***본절은 이혼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 서로가 다름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성내기보다는 ()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②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림
- ③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 ()과 공의와 ()을 얻음
- ④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방벽을 헐음

⑤입과 혀를 지키는 자 →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함

(6) 게으름과 악(24-29)

본 단락은 본장의 본론부를 자리하며 여러 유형의 악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거짓되고 악한 것은 파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 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함, 그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
- ② 게으른 자의 욕망 → 자기를 죽음,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
- ③ 어떤 자는 탐하기만 함 /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풀
- ④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함, 그들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더욱 그림
- ⑤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임 / 확실히 들은 사람(진실한 증인)은 힘이 있음
- ⑥ 악인 →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함 / 정직한 자 → 자기의 행위를 삼감

(7) 하나님의 승리(30-31)

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30절)

②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31절)

**아무리 뛰어난 ‘지혜’(삶에 필요한 기술), ‘명철’(통찰력), ‘모략’(조언)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하지만, 모든 결과는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